11월3일 Market Index
코스피 5648.79 (-210.29)
코스닥 704.39 (-29.97)
금리(국고채 3년) 3.736 (-0.004)
환율(원·달러) 1341.00 (-2.80)

metro 경제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1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11월 4일 수요일

하나금융그룹

韓, 수출 절반 반도체… 'AI 의존' 경고

반도체 수출 비중 큰 폭 상승
글로벌 AI 산업 의존도 심화
투자둔화 땐 경제 충격 우려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에 따른 반도체 수출이 급증했지만, 향후 투자 증가세가 주춤할 경우 반도체 수요·가격을 거쳐 국내 성장에도 충격이 전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 중앙은행은 AI 투자 둔화가 현실화되면 실물경제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고, 한국은행도 AI 투자 속도가 꺾이면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이라고 진단했다.

◆ 반도체로 쏠린 수출 호황

3일 산업통상부의 '10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564억4000만달러로 전체 수출액 1152억8000만달러의 약 49.0%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달 약 26.4%였던 비중이 1년 사이 크게 높아졌다. 전체 수출 증가액에서 반도체 증가액이 차지하는 몫은 약 73.1%였다.

반도체 외 품목 수출도 전년 동월보다 34% 증가했지만 수출 확대의 무게중심은 반도체에 실렸다. 이는 AI용을 구분하지 않은 전체 반도체 수출액 기준이다. 산업부는 AI 관련 빅테크의 설비투자 지속과 높은 단가·물량을 반도체 호조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해외 데이터센터 투자 증가세가 예상을 밑돌면 반도체 수요와 가격, 한국 기업의 수출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적 변화는 설비투자와 배당·성과급 등을 통해 국내 소득으로 전달된다.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2국장은 지난달 27일 국내총생산(GDP) 설명회에서 "기업소득이 정부소득과 가계소득으로 파급되기까지는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AI 투자 조정의 실물·금융 파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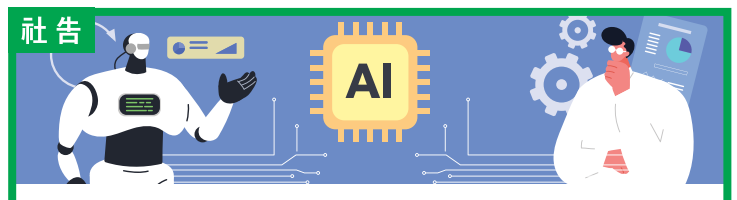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은 지난 2일 공개한 10월 경제·물가 전망보고서 전문에서 AI 수요 확대가 단기적으로 일본의 수출·생산과 기업이익을 끌어올린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AI 성장 기대가 크게 낮아지면 주가의 급격한 재평가와 글로벌 금융여건 긴축, 투자 둔화가 실물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봤다.

일본은행은 일본의 비AI 관련 수출 부진을 짚으며 "AI 관련 수출 둔화는 전체 수출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AI 호황의 지속 여부가 수출국 경제의 성장 경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의 성장 민감도는 한은의 조건부 분석에서도 확인된다. 한은은 8월 경제전망에서 AI 투자 속도가 상당폭 조정되면 2027년 성장률이 기본 전망보다 0.4%포인트(p) 낮아질 수 있다고 추정했다. 당시 전제를 적용한 분석으로, 반도체 수요와 국내 생산능력의 추가 확대에 따른 성장 상방 가능성도 함께 제시했다. 〈2면에 계속〉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 '2026 뉴테크놀로지포럼'

AX시대, 주요 업종별 AI 활용법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언론 〈메트로신문〉과 〈메트로경제신문〉을 발행하는 메트로미디어가 'AX시대, 주요 업종별 AI 활용법은'이란 주제로 '2026 뉴테크놀로지포럼'을 개최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인공지능 전환(AX)'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제 AI을 도입해 업무에 활용하는 AX는 '선택'에서 '필수'로 바뀌었습니다. 일부 앞선 기업만 쓰던 기술이 이제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퍼지고 있습니다. 다만, AI는 업종마다 쓰는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이 쓰는 방식과 금융업이 쓰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내 산업에 맞는' 안내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AX 시대의 변화를 어렵고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일터에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이야기로 풀어 드립니다. 여러분의 산업, 우리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최신 트렌드와 산업 적용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2026 뉴테크놀로지포럼'에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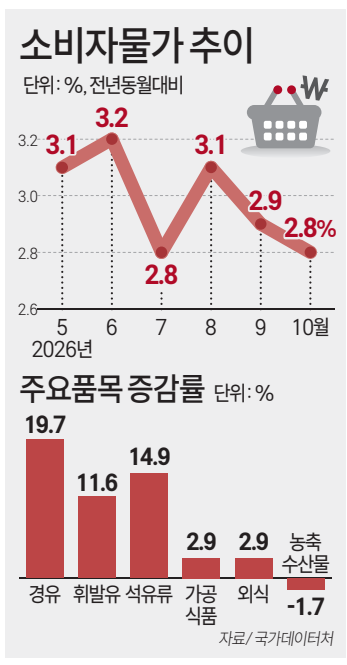
◆ 주 제 : AX시대, 주요 업종별 AI 활용법은
◆ 일 시 : 2026년 11월 18일(수) 14:00~16:50
VIP 티타임 13:30~14:00
◆ 장 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프로그램 :
14:20~14:50 기조강연 이경전 경희대학교 교수
14:50~15:20 뤼튼테크놀로지스 김지섭 이사
15:20~15:50 LG유플러스 한영섭 AI R&D랩장
15:50~16:20 KT IT부문 서비스플랫폼담당 박기철 상무
16:20~16:50 SK텔레콤 현창호 엔터프라이즈 기술지원팀장
◆ 문 의 : 포럼 사무국 (02)721-9818(forum@metroseoul.co.kr)
◆ 참가비 :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metro



美 중간선거… 트럼프 대통령 '운명의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의회 지형을 결정하는 중간선거 투표가 미 동부시간 기준 3일 오전 5시(한국시간 3일 오후 7시)부터 순차로 진행된다. 이번 선거는 임기 6년의 연방상원 의원 100석 중 35석, 임기 2년의 연방하원 의원 435석 전원, 그리고 36개 주의 주지사 및 주의회 의원을 선출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 앞서 2026년 11월 2일 월요일 워싱턴의 링컨 기념관 반사 연못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AP·뉴시스

10월 소비자물가 2.8%↑… 석유류 19.4% '껑충'



자료/국가데이터처

데이터처, 상승률 3%선 오가
가공식품·외식 등 상승폭 확대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3% 선을 하회했으나 석유류와 가공식품, 외식 물가 상승세는 확대됐다.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의 경우, 각각 11개월과 8개월 사이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국가데이터처가 3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8%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 선을 오르내리는 모습이다. 올해 5~6월 중동전쟁 여파로 3%대에 달했다가 7월에 2.8%로 내려왔다. 이후 8월 3.1%로 반등했으나 9월(2.9%)에 이어 지난달 2%대 후반을 유지했다.

품목별로 석유류가 14.9% 급등하며 전체 물가 상승률을 0.56%포인트(p) 끌어올렸다. 이는 7월(15.5%) 이후 석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유가 19.7%, 휘발유가 11.6% 올랐다.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상승률은 전월 9.8%에서 14.5%로, 취사용 LPG는 11.8%에서 15.2%로 높아졌다.

가공식품도 2.9% 오르며 9월(2.1%)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작년 11월(3.3%)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높다. 업체의 출고가 인상이 순차적으로 반영된 데다 추석 할인도 끝난 영향이다. 죽 등의 즉석식품은 12.4% 올랐다. 비스킷과 빵은 각각 5.9%, 라면은 1.4% 올랐다.

외식 물가 역시 2.9% 올해 2월(2.9%)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외식 물가의 전체 물가 상승률 기여도는 0.42%p였다.

반면 농축수산물 가격은 1.7% 내리며 전체 물가를 0.14%p 끌어내렸다. 〈2면에 계속〉

/김연세 기자 kys@

"국산 전기차, 세제 지원 확대해야"

국정감사 산업 보호 필요성 지적

중국산 전기차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국내 생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미국과 유럽 등이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에 나선 상황에서 국내 생산기반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3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종합감사에서는 정부 세제개편안에서 전기차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놓고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 전기차 산업을 지키기 위해 관세와 세제상 공제, 보조금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 없이 시장을 지킨 나라는 사실상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재경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배준영 의원도 "반도체가 어려웠을 때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줬듯이 전기차도 다른 나라와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는 만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전기차를 설비 투자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관계 부처 및 청와대와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며 "전기차가 향후 2~3년간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점도 확인해 어떻게 결론을 낼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3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메트로 한줄뉴스

▲ 이 대통령 "하루빨리 택지 조성해 주택 공급 속도 내야"
▲ 이 대통령 지적에… 문체부 "다문화가정 지원 현황 파악"
▲ 국민의힘, 반값 등록금·월세 확대… 27조 감액 추진
▲ 보수 통합론에… 장동혁 "당원이 결정" 오세훈 "모두 다 힘 모아야"



▲권영세 "당대표 선거, 가장 적합하다면 나설 생각 있어" /사진 뉴시스
▲경찰, '대통령 전용기 탑승자 정보 유출' 수사 전환